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벨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이종윤 목사 (위임목사)



드디어 서울교회는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당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러나 우리는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엎드려 봉헌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날을 맞이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바친 것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렸다는 오만 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나의 봉헌은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시키고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의 봉헌이 내 죄과를 위한 벌금이나 탕감을 위한 속죄금은 더욱 아닙니다.
봉헌은 더 큰 축복을 위한 투자도 아니고, 출세를 위한 로비자금도 아닙니다.
봉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봉헌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적선이나 한 것처럼 뽐낼 것도 없고 형제를 향하여 우쭐거릴 것도 없습니다.
교회 앞에 눈공행상을 바라만한 일은 더구나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교회는 누구에게도 감사패나 공로패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드려야 할 만큼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는 겸비한 심정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내 것 중에 얼마를 주께 드릴까 저울질했던 것이 생각나면 크게 회개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성군 다윗도 못한 성전 봉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더 아름다운 헌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감사의 이유 외에 그 어느 것도 봉헌의 정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나이다!”



현당을 축하하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최성규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순간마다 스스로를 산제사로 드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당은 단순한 종교적 행동들의 무대나 집회를 여는 장소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수직적 교제의 정수(精髓)를 실질적으로 체험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경험을 공유하는 성도들끼리의 헌신적인 나눔과 채움을 느끼는 성역(聖域)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교회 예배당 현당은 건물의 효용이나 효용이라는 측면에

앞서 이러한 신앙가치관이 예배당이 내적인 구조와 외적인 형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한 이종운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현이며 열매로 불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한기총 신학연구위원장으로서는 최근 사형제도와 즐기세포연구에 대한 한국교회의 신학적 방향을 제시하는 등 큰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신 이종운 목사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귀한 예배당의 현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백도용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우리가 성전을 바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며, 현당까지 인도하신 분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전의 기초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서울교회의 교인들이 모인 것이며, 교인 각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현당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 위해 눈에 보이는 않는 성전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서울교회 교인들이 계셨기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이종운 목사님과 서울교회 교인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서울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 이 땅위에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중은 총장(장로회신학대학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시기를 기원하며, 서울교회의 교회당 현당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이종운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니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1991년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비전과 믿음으로 지금의 서울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1999년부터 시작하여 6년 7개월 만에 성전건축을 마무리 짓고, 2005년 오늘 현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큰일을 이루어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또한 현당을 기념하여 2050명의 교인들이 함께 우리 한글로 필사한 친구약 성경 필사본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마도 한국교회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회의 교회당 현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서울교회가 선포해 온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시대의 구원선", "민족의 향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명박 장로(서울시장)

서울교회 새 성전 봉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교회는 벽돌이 아닌 기도로, 기술이 아닌 비전으로, 물질이 아닌 믿음으로 지어진다 생각합니다. 오늘 새 성전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기까지 서울교회에도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우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 세워진 새 성전이기때 더욱 기쁨과 은혜가 크리라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면 저희 형제들을 끌어앉게 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철모르던 어린 시절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고, 귀찮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란 후에는, 집

을 떠나 있더라도 새벽 4시가 되면 '아, 어머니께서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힘을 얻었고, 지금은 저도 세계 어디를 가도 아침기도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새벽기도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회의 새 성전 봉헌을 계기로 그 지역에 새벽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이 깊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새 성전 봉헌을 축하드리며,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리라!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세워진지 불과 14년에 놀랍게 성장하고 큰 교회로 자리 잡은 서울교회가 이제 웅장하고 아름답고 기능적인 예배당을 봉헌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며 세상을 책임지는 사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교회로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성의 목사(연동교회)

서울교회의 현당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께 축하드립니다. 서울교회는 서울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그 이름대로 서울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실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기뻐하십니다. 작고 보잘 것 없는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여 모세가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영광

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영광 때문에 제사장들도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과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고 헌당하는 서울교회에도 그 영광이 떠나지 않고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40년 동안 성막 위의 영광을 보며 행진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교회 위의 영광을 바라보며 교회를 중심으로 사시면서 크신 주님의 은총을 맞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뻐하고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정태봉 목사(요동교회)

은혜롭고 풍성한 감사의 계절에 이종윤 목사님과 서울교회 은 교우들의 기도와 땀으로 세워진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이 성전가운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시 84:10)는 서울교회 교우들의 찬양과 고백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울러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치며 기도했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

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대하 6:21)라는 기도가 이 성전을 통하여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성전을 통하여 청교도 신앙의 계승자로서 세계복음주의신학을 이끌어나가시며, 세계교회의 영적지도자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시는 이종윤 목사님의 선교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서울교회가 단순히 지역사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향한 신앙공동체로서 더욱 확장되어 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Lord has done for you, through you and your congregation!

earth as the waters cover the sea (Habakkuk 2:14)
We will continue to pray for you in that task.

I am happy to provide a congratulatory message. I am delighted to offer to Dr. Jong-Yun Lee and to Seoul Presbyterian Church my warmest congratulations on the occasion of your 14th Anniversary and Dedication service.

Dr. Jong-Yun Lee was my host on my very first trip to Korea almost 20 years ago. I have treasured his friendship and admired his gifts since that first meeting. I am thrilled to see many ways in which the Lord has used this outstanding Christian servant and leader (and Westminster alumnus!)

I had the great honor of visiting the Seoul Presbyterian Church both in your original facilities and in your new building, last 5 years ago. It is remarkable what the Lord has done for you, through you and your congregation! You have extraordinary resources with which to extend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in Christ until that knowledge covers the

Many in your congregation and especially among your elders have been most encouraging to us at Westminster. I delight to see this 14th Anniversary and Church Dedication as a great encouragement to you. I rejoice with you on this special occasion.

Sincerely in His Grace,
Samuel T. Logan, jr.



Dr. Samuel T. Logan, jr.
(Ex. President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서울교회의 어제

우리는 꿈꾸는 자 같았도다!



김광신 장로 (당회 서기)

꿰어보았는가. 병들어 보았는가. 교회 없는 서러움을 겪어 보았는가. 월세로, 전세로 얻은 빌딩건물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예전엔 큰 교회 건물에서 큰소리치며 예배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미아가 되었으니 갈 곳 없는 나그네의 서러움뿐이었다.

요셉처럼 종애를 독차지 하다가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수년을 햇빛 없이 산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고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날뛰도록 좋기만 하였다.

구차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셨고 예배 때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말이

다. 평생 받을 복을 몰아서 주신 것이다. 과거는 약이 되고 거름이 되어 오늘의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헌당하게 되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건이고 들도 없는 기적이다. 이젠 눈물도 그치고 흥분도 가라앉았고 우리 앞에 찾아온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잠 못 이루는 밤만 계속된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소리치며 뛰어나왔더니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시어 오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가슴으로 느끼게 하셨다.

이 감격은 자손대대로 전해질 소중한 재산이 되어 다시는 불행을 모르는 시간만 계속되리라.



백영희권사(11교구)

일곱 촛대가 높이 들려 대치동 한가운데 등대로 세상을 비추이는 서울 교회를 멀리 미국 땅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14년전 어느 가을입니다.

목자 잃은 양떼들이 갈길을 몰라 헤매이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주님이 유월절 준비를 묻는 제자들에게 돌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서 집 주인에게 장소를 빌려 달라고 하라...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준비 할 수 있도록 숨은 몇몇 권사님들을 예비하시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전인화 권사님의 새로 지은 빌딩5층이 예비되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진행 되는 일들을 볼 때 주님의 역사는 무섭고도 오묘하며 완전하며 위대하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예배드릴 잔치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날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완벽하게 주님이 예비하신 것 처럼 그 날 잔치(첫 예

배는 통곡의 강이었고 뜨거운 성령의 도가니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로 밀고 가시는 권사님들, 작은 강대상, 의자, 전자음간, 마이크, 필요한 집기들을 눈물로 준비하셨고, 겸손과 희생의 본을 보이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지금 생각해도 그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위대한 영웅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셔서 이 영광스런 서울 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다 가신 권사님들의 눈물 위에 지어졌으며 그 무릎 위에 세워진 서울교회가 이제 헌당식을 갖는다니 이 기쁨을, 이 감격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지고 세워진 서울 교회는 세계를 교구로 삼고 빈약한 자들의 열린 교회로 힘차게 달려가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서울 교회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바라보면서 이길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헌당을 축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원복순 권사 (은빛찬양대)

주님 나를 잡아주셨네
주님 나를 깨워주셨네
주님 나를 채워주셨네
주님 나를 세워주셨네
야! 값지게 하셨네

교회 설립 이후 14년이 지나간 지금, 등이 굽어 왜소한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은 서울교회의 일 세대 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등이 굽고 다리를 절으며 지팡이로 또는 휠체어를 타며 예배를 참석하시지만 서울교회가 세워지던 그 날, 그 외침, 그 환희의 기쁨 하늘을 찌르듯이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삼척바다로 가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기뻐하듯 좁은 공간에서 쏟아지는 땀과 싸우며 우리의 아들

딸들은 그 순간을 영원토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종운 목사님을 바닷물에 던지고, 목사님이 물에 빠지는 줄 알고 발을 구르면서 소리치던 권사님들, 바다에서 청년들은 목사님을 끌어 안았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가 바뀌고 달이 가고 날이 가면서 하나님은 서울교회를 값지게 쓰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서울교회는 50일간 사명자대회로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헌당하는 이 날 서울교회는 암송하고 필사한 성경을 봉헌하고 14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호산나 장애인 전문대학을 설립을 선포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교회 성도 모두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현당의 기쁨

나의 사랑 서울교회여!



성도들의 눈물과 정성으로 세워진 교회를 헌당함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 1교구 최양진 집사

-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 2교구 이동만 집사
-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 3교구 탁경준 집사
-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 위해 세워진 교회여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구원의 방주, 복음의 센터가 되길 기도합니다. - 4교구 윤문자 권사
- 서울교회가 처음 믿는 교회였는데, 첫 신앙과 현당의 기쁨까지, 이렇게 사랑해주시니 감사합니다. - 5교구 엄금순 권사
- 91년 10월6일 첫 모임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불러주셨고 이렇게 헌당까지 맛보게 하시니 더 바랄 것 없이 감사드립니다. - 6교구 정정숙 권사
- 서울교회여! 영원히 빛나라! - 7교구 백영자 집사
- 벽차고 눈물 나고...감격밖에 없습니다. - 8교구

아병선 권사

-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세워질 수 없는 교회인데, 이렇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 9교구 이남성 집사
- 정한 날에 헌당되게 모든 성도가 다 기쁨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것을 이뤄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 10교구 서순영 권사
- 14주년 될 동안까지 목사님을 비롯해 믿음의 어머니들인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 11교구 이승우 집사
- 좁고 열악했던 초창기에 비해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 12교구 이형희 권사
- 서울교회 온 지 딱 3년! 처음엔 구경꾼 같던 저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헌당에 동참케 하셨다는 확신이 들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 13교구 고극란 집사
- 저희가 서울교회에 처음 왔을 때 헌당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헌당에 참

여할 기회를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주시니 큰 영광이었습니다. - 14교구 차도훈 집사

- 아이들이 좋은 교회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유아부 학부모 옥종호 집사
- 하나님! 새로 지어 주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헌당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해요. - 유치부 김은초 (7세)
-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년부 1학년 정지예
-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두려지게 돼서 무척 설렘니다. - 초등부 6학년 진원식
- 헌당처럼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주님께 바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 중등부 2학년 이주현
-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때에 이루어져서 더 감사해요. 예배당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드립니다! - 고등부 2학년 최근우
- 나의 사랑 서울교회! 서울교회여 영원하라! - 사랑부 박한샘 (18세)

추수감사절 · 교회설립14주년 감사 · 예배당 헌당 · 서울암송필사성경 봉헌 선교사 파송 · 호산나 장애인 전문대학 및 호산나 대안학교 창설 선포식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 성찬식 · 찬양예배 시간 각종 행사 가져

서울교회 성도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하나님의 축복이 겹겹이 임한 감동키 어려운 만큼 기쁜 날이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켜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가져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한

다. 그리고 저녁 찬양예배시간은 특별한 잔치의 시간으로 지켜진다. 교회설립14주년을 감사하며 이곳 대치동 예배당을 건축하며 온전한 예배당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헌당식을 갖는다. 그리고 헌당을 준비하

며 2,05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요절을 암송하며 정성들여 쓴 서울암송필사성경을 봉헌한다. 또한 1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간을 갖고 호산나 장애인 전문대학과 대안학교 창설을 선포식도 갖게 된다.

2006년 교구일꾼 발표

교회는 2006년 각 교구에서 원활한 교구업무를 진행할 교구일꾼을 발표하였다. 오늘 순례자에 발표된 교구일꾼들은 12월4일(주) 예배 시간에 임명을 받게 된다.

교구위원회

위원장: 임상현 장로
서기: 이복규 장로 회계: 조정식 장로
<1교구>교구장: 박두영 장로 간사: 윤명구, 이인숙, 안미경
<2교구>교구장: 이복규 장로 간사: 한주찬, 배병이
<3교구>교구장: 김세제 장로 간사: 우지원, 김유경

<4교구>교구장: 오정수 장로 간사: 구정두, 박미혜
<5교구>교구장: 성준경 장로 간사: 이화명, 장낙희
<6교구>교구장: 노송성 장로 간사: 서명조, 윤성희
<7교구>교구장: 이영기 장로 간사: 김종윤, 한성옥
<8교구>교구장: 홍성주 장로 간사: 강낙훈, 김정운
<9교구>교구장: 이관규 장로 간사: 유신, 김정애
<10교구>교구장: 진돈 장로 간사: 김재근, 김은순
<11교구>교구장: 왕경래 장로 간사: 한상준, 유숙인
<12교구>교구장: 전기섭 장로 간사: 홍창배, 김선영
<13교구>교구장: 조정식 장로 간사: 김은태, 박순복, 양정실
<14교구>교구장: 신홍식 장로 간사: 차도훈, 이신애

도서 기증 받는다

지난 23일 개관한 도서실에 비치할 도서를 기증 받는다. 각 부분에 걸친 도서를 도서실(실장: 정동호 집사)에 기증하시면 기증자의 이름을 붙여 영구 존안 된다.

태신자 명단
김익권 한정희 한희수 장복순 정옥희 문영희 김미영 김혜림
원혜영 이경은 이지현 김정우 구경모 기중서 송갑순

동정

- 김상철 장로는 LA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미주한인교회연합 주최 북한인권 촛불기도회 강사로 출국한다.
- 주간식당 봉사: 루디아전도회(11월27일) 뱀뱀전도회(12월4일)
- 금주의 식사: 장로일동 - 헌당을 감사하며 -

2006년 신입서리 집사 교육 및 면담

2006년 신입서리집사 교육 및 면담이 시작된다. 2006년 신입서리집사 후보로 통보받은 이들은 오른쪽 교육 및 면접 일정을 참조하여 필히 교육과 면접을 받아야만 임명 된다. 기도로 준비하여 교육과 면접을 마치고 임명받도록 한다.

1. 교육(3차 교육일정 중 1회 참석)
 - 1차: 11월 26일 (토) 오후3시 501호
 - 2차: 11월 30일(수) I부 예배 후 501호
 - 3차: 11월 30일(수) II부 예배 후 501호
2. 면접(2차 면접일정 중 1회 참석)
 - 1차: 12월 1일 (목) 오전6시 601호
 - 2차: 12월 2일 (금) 오후7시 601호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N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 (http://www.z-highway.com)

서울교회가

(연표)

- 1991. 9.30-10.4 서울 문정동 이옥녀 권사택에서 39명의 성도들 기도회 열.
- '91. 10.6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번지에서 성도 169명이 예배를 드림.
공동의회 소집, 이종운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키로 만장일치 가결.
- '91. 10.8 이종운 목사 미국에서 귀국
- '91. 11.24 창립예배 (설교:이종운 목사 창립인원 535세대 1860명)
- '91. 12.15 당회 조직 (당회장: 이종운 목사 당회원 : 장로 6명 협동장로 1명)
- '92. 2.1 첫 선교사 파송 (체코: 파블로 체코 목사, 우간다: 김정운, 박숙경 선교사)
- '92. 2.26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설립
- '92. 3.30-6.1 제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수강자 793명)
- '92. 5.26-6.3 제 3차 김치신학세미나 (인도, 스리랑카, 불가리아, 일본 등 34명참석)
- '92. 6.6-13 92 흥해 작전
- '92. 7.27-7.30 92 전가족 여름수련회 (강원 삼척산업대학) 및 관동지역복음화 대회
- '92. 9.6 교회학교 소망부 개교, 70인 전도대 발대
- '92. 10.4-11.22 비전 2000 운동
- '93. 3.13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집례
- '93. 5.5 제1회 한교회 한가족 한마음 축제(중앙대학교정)
- '94. 5.1 반포동 예배당 입당 예배
- '94. 5.5 제2회 한교회 한가족 한마음 축제(잠실보조경기장)
- '94. 11.27 농어촌 미자립 100교회 지원운동 시작
- '95. 1.1 순결 서약식
- '95. 10.18 교회당 대지 구입 및 계약체결 (강남구 대치동 210번지)
- '96. 2.24 새 예배당 설계 용역계약(정립건축)
- '96. 3.10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을 로잔위원회 공식기구로 승인
- '96. 9.26-28 성경통독사경회 (구약)
- '96. 10.23-26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 '97. 10.6 새예배당 건축허가 취득
- '97. 12.1 권사회 조직 개편, 제1권사회(만 70세이상), 제2권사회(만 70세미만)
- '97. 12.31 새예배당 대지 대금 완불 (등기이전)
- '98. 1.2-3 성경통독 사경회(신약)
- '98. 1.4 어린이(유치,유.초등)저녁예배 실시
- '98. 6.18-8.6 제1, 2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민대학
- '98. 8.15 비전 2020운동 본부 발족
- '98. 8.15 목사, 장로, 안식제 채택



91년 10월 6일 논현동 예배당에 모인 169명 성도



서울교회 창립예배 (91년 11월 24일)



91년 초창기 당회



목회자 세미나 (95년 4월 서울 YMCA 대강당)



순결서약식 (95년 1월 1일)



92년 삼척 전가족 수련회 및 관동지역 복음화 대회(92년 7월)



비전2020운동- 진중세례식



김치세미나



한가족 한마음 축제



2004년 단기선교팀

세워지기까지

(목사 6년 시무후 1년 안식, 장로 4년 시무 후 1년 안식)

- '98. 10.10 새예배당 일시작 감사예배
- '98. 11.2 새예배당 건설공사 도급 계약 체결
업자(주)상상종합건설
- '99. 4.16 탈북난민을 위한 UN보호시설 청원 서명운동 발족
- '99. 6.4 굴토 공사 완료
- '99. 11.7 남선교회·여전교회 개편
- '99. 11.15 (주)상상종합 건설의 재경난으로 새예배당 건축중단
- '99.12.17 강남구청의 직영 공사 허가로 건축위원회 책임 하에 직영 공사
- 2000. 4.16 본당 바닥 공사 완료
- '00. 8.13 새예배당 옥탑 바닥 공사완료
- '00. 9.21 제1학기 살롬 경도대학 개강
- '00. 11.5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 창단
- '00. 12.25 대치동 예배당 입당
- '01. 4.5 푸른 동산 가꾸기 식목행사
- '01. 4.10 제 1 학기 주부대학 개강
- '01. 8.13-25 제 1 기 단기선교팀 파송(태국 치앙마이, 총 27명)
- '01. 8.27 학원선교사 파송식
- '02. 8.26-29 아시아로잔대회ALCOE V
- '03. 3.30 로마서 강해 중강
- '03.11.23 파이프오르간 봉헌식
- '04.3.1 3.1절 공산독재종식과 민족복음화 위한 3천 목회자 금식성회 본교회에서 개최
- '04.4.6 화요경오 음악회. 연 2회 개최
- '04.10.25 이종운 목사, 한국교회 10대설교가로 선정 (한국교회 사학연구원, 한국기독교사학회 공동주최)
- '04. 11.28 서울교회 3대 비전 제시(선교사100명 파송,교회학교학생 만명출석, 빈약한자구제)
- '04. 12.3 한기총, KNCC 전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운) 주기도, 사도신경 새번역 확정
- '05. 2. 6 영어예배 시작, 주보6면 발행
- '05. 4.14 제1기 세계 선교대학 개강
- '05. 5. 1 현당감사 14가지 경축행사 발표
- '05. 6. 6 서울교회 암송필사성경 제작 작업 개시
- '05. 7. 5 제 13차 김치세미나, 제 6회 세계개혁신학회(IRTI) 개최
- '05. 11. 27 창립 14주년 및 예배당 헌당, 암송필사성경 봉헌, 선교사 파송, 장애인 전문대학, 대안학교 창설 선포식

오정수 장로(건축위원장)

불탄 포도병들같이 쓸모없는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기시어 지난 14년간 주님의 몸되신 서울교회에 잔이 넘치도록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1991년 가을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통곡했습니다. 어이없이 목자를 잃은 양떼들은 마침 고 강종심 집사님, 전인화 권사님 가정에서 새로 지은 논현동 빌딩에서 첫 번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찬 마룻바닥에서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는 영혼이 헐벗은 자들의 통곡이었고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해 서울교회를 예비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교회는 3년이 채 안되는 논현동 시절을 뒤로 하고 1994년 5월 반포동으로 이사를 하였고, 그로부터 6년 7개월만인 2000년 성탄절에 새예배당으로 입당하여 바야흐로 대치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빈손으로 교회를 설립하여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 부름 받은 건축위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만사를 제쳐놓고 발이 닳도록 100여 곳이 넘는 부지를 다니며 교회 부지를 물색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지금의 예배당 터를 선물로 주시었습니다. 1995년 대치동 예배당의 터를 계약하고, 96년 2월 신축 설계 계약을 맺으며 98년 10월에는 드디어 예배당 건축의 첫 삽을 떴습니다. 그 환희와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은 성도들에게 믿음과 물질과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부여하시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상 8층, 지하 3층, 연건평 4,500평, 본당 3,400석의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하셨습니다.

특히 IMF 경제 한파 속에서도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금과 뜨거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었고, 은 성도들이 헌과 정성과 시간과 몸을 바쳐 건축에서 봉사한 일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배당 건축과 대출금 상환의 어려움을 증에도 9세대의 교역자 사택을 허락하시며 서울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11월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성도의 가정에서 천상의 악기인 파이프 오르간을 봉헌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2005년 11월 27일 서울교회는 이 거룩한 예배당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앞장서서여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신 당회장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은 성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서울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 모신 역경의 고비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현당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예배당건설공사 계약 체결



1999년 6월4일 들토공사 앞문



2000년 12월25일 새예배당 입당예배



서울 암송필사 성경

김세재 장로



예배당 현당을 기념하여 필사성경을 만들어 봉헌하자는 위임목사님의 제안을 듣고 들뜬 마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5월 초순의 일로 기억됩니다. 막상 회의를 소집해 보니 저희들의 무경험과 무지로 인해 기도할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무슨 종이여다 어떤 필기구로 쓸 것인지, 얼마만한 크기로 누가 어떤 순서로 써 나갈 것인지?

후손들에게 길이 남기기 위해 전시본과 보관본 두 권을 만들자는 제안을 채택하긴 했는데 막상 같은 페이지를 두 번씩 쓰도록 부탁드리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몇 번의 실패를 거쳐 특수한지를 제작하게 되었고 필기구를 정하고 연습지까지 나누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흥해작전이 시작되는 6월 6일, 8층 만나홀에서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원 부부, 교역자 등 80여명이 가까운을 입고 함께 모여 경건의 시간을 가진 후 필사 대장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그 후 70여 일 동안 어린 고사리 손들로부터 병상에 누워계신 연로한 권사님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6개국 성도들까지 연인원 2050명이 참여하여 광복절인 8월 15일에 원본 필사를 마칠 수 있었습

니다.

1800여 쪽을 일일이 촬영하고 색을 조정하고, 대형 표지를 디자인하는 등 세부사항을 결정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신실한 봉사자들을 보내주셨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권에 55킬로그램 넘는 두 권의 원본을 보존하기 위한 전시대를 구약의 법제에서 모티브를 얻어 설계하여 무사히 전시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지혜입니다. 표지에 교회전경을 3주에 걸쳐 주야로 아름답게 십자수를 놓게 하심도, 그리고 축소성경 1991권(서울교회 설립연도)을 제작하여 세계 유명 도서관과 대학, 그리고 필사 참가가정에 나누게 된 것도 다 그분의 힘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배우며, 증거하기를 힘쓰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땀 흘려 만든 성경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가슴에 음각으로 새기며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무지를 기도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섬김위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울 한 울 뜬 정성의 십자수

이신에 집사(14교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정성으로 참여한 서울암송성경필사를 되돌아보며 마지막 과정인 성경표지를 수놓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화답하는 일에 부족한 제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색실로 한 땀 한 땀 수가 놓여질 때 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십자수 표지에 울울이 스며있는 땀방울과 정성을 모두 모아 주님께 봉헌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처음 십자수를 받았을 때 과연 기한 내에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잠시나마 잊고, 사람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한 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의 시간표로는 5~6개월이 필요한 분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25일 동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510호에서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몇몇 분의 권사님과 집사님들께서 강행군을 하셨고 밤이 되면 몇 분의 집사님께서

집에 가지고 가셨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수를 놓아도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은 긴 작업을 하는 동안 육신이 피로로 인하여 넘어지기까지 하시는 어느 집사님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 드리며 서로 격려하며 계속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이 귀한 일에 도구로 쓰임 받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우리 개인의 힘으로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 안에서 내 목소리를 죽이고 겸손히 정성을 모을 때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행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음

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름다운 색실로 한 땀 한 땀 수가 놓여질 때 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복지재단 '호산나' 설립



연초 서울 교회의 3대 비전으로 제시된 "사랑의 집" 건립 계획이 창립 14주년과 헌당 기념 주일을 맞아 그 가시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교회는 내년 3월부터 서울교회 내에 호산나 학교를 설립, 운영하기로 했다. 호산나 학교는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을 위한 학교로, 산하에 호산나 대안학교와 호산나 방과 후 학교, 호산나 전문대학 등 3개 학교를 설립한다.

먼저 호산나대안학교는 기존 특수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로, 학생 개개인의 욕구에 맞춘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할 예정이다. 주로 중고등학교 연령의 장애인들이 대상이며 방학이 없이 연중 운영된다. 교과과정도 국어와 수학, 사회 등 일반적인 과목 외에 생활영어와 가사, 성교육 등 기능적이고 생활중심적인 과목으로 구성해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는 정규학교수업을 마친 장애 청소년

을 주대상으로 오후 3시~6시까지 실시되며 교육내용은 가정과 학교에서 간과하기 쉬운 생활직 기능과 지역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현장학습과 여가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내의적으로 처음 설치되는 장애인 전문대학인 호산나 전문대는 학교를 졸업한 뒤에 직업을 얻지 못하고 더 이상 교육의 기회마저 없어져 버린 성인 정신지체, 발달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 위해 실험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다. 3년의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성인으로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특정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 기술을 배우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전공은 서비스학과와 사무보조학과, 원예학과, 조리학과, 노인케어학과 등의 5개 학과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호산나 학교는 1차적으로 서울교회 내 6, 7층의 공간을 활용해 중고등과정인 대안학교와 방과후 학

교를 주중 운영하고 향후 학교건물과 부지가 확정되면 초등학교의 직업재활 시설로서 보호작업시설과 기업연계사업장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운영 실무를 담당할 이동기 집사(경기대 사회 복지학과 겸임교수)는 현재 7명의 교사를 확보해 교과전담제 운영을 준비 중이며, 서울교회 내에 전문직 자원봉사자와 청년 봉사자를 모집해 이들을 교육시킨 뒤 학교운영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홍보를 위한 설명회가 12월 19일 2시~3시 30분 서울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빈약한 자 구제"라는 서울교회의 비전을 키워갈 호산나 학교는 헌당과 동시에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비록 그 시작은 미약할 지라도 온 성도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기도가 있어야겠다. (문의 558-7166)

김민철(편집부)



호산나 대안학교 · 전문대학에 바란다

고교졸업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이 되길

교육자 집사(교구, 사랑부 교사)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큰 아들 주형이는 발달 장애로 성 베드로 초·중·고 과정 12년을 마치고 현재 다니엘학교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주일이면 사랑부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남편과 저는 사랑부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형이를 둔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고교과정까지 마친 주형이를 위한 평생교육 기회가 거의 불가능한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걱정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장애교육 시설의 현실을 한마디로 말하면 초·중·고 과정은 그동안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정책의 결과 상당수 아동이 높은 수준의 정규과정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 자녀들의 교육기회(사회교육, 평생

교육과 같은 개념)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역별 주간보호센터에 어렵사리 들어가면 단지 3년 만기로 다닐 수 있을 뿐, 그 후로는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가족 모두는 장애 아동의 평생교육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 서울교회가 대안학교·전문대학 창설을 통하여 장애아동, 특히 고교과정 졸업 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숭고한 복지사업의 첫 삽을 떠주신 데 대하여 발달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무한한 고마움과 함께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호산나 복지재단에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대안학교·전문대학의 개념과 성격을 분명히 하여 각 단계별 성격에 맞는 특성을 지녀 이를 분명히 밝히고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틀을 갖추면 우리 학부모들은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또한 타기관의 좋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현

실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고 그룹 홈까지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실 아동이 학교에 간 동안 부모들도 휴식을 취해야 하고 재충전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 실시 하여 이를 또 다른 전도의 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복지재단은 저희 장애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애로 사항을 심분 참작하시어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훌륭한 평생교육 기관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복지재단을 통해 주일 전도, 복지활동,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참신앙의 모습을 구현하는데 아주 큰 획을 그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들 주형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서울교회 사랑부에 감사드리며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부가 날로 날로 성장하게 하시는 좋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땅끝까지 주님이



이재울 박병진 선교사(캄보디아)

가나안 정벌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먼저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부부도 그렇게 지난 5월 캄보디아를 향해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의 정탐을 통해 우리 부부의 캄보디아를 향한 열정은 확고해졌습니다.

조국을 위해 군에서 30년을 달려온 시간들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로 보내 주셨습니다. 지난 3개월간 멀리서 바라보며 존경하던 이종윤 위임목사님과 서울교회의 성도들을 가까이에서 섬기며 함께 복음을 위해 나아감은 우리 부부에게 가슴 벅찬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위임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황폐한 땅 캄보디아의 영혼들에게 공급 되어질 자양분으로 우리에게 비축 되어 졌으며, 질서 가운데 자원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섬김의 모습들은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범

으로 각인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교회 새 예배당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당식 날 선교사로 파송 받게 되어 감개무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두 피력할 수 없는 여러분의 호의는 선교지에서 지치고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뿌듯한 것은 사명자 대회를 통해 선교사로서 우리의 선교 비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막바지 특별새벽기도회는 서울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케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임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캄보디아 군부대에 제1호 군인교회 설립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여러분! 캄보디아를 비롯한 인도차이나 반도가 여호와 닮은 깃발로 물결치는 그 날을 향하여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카자흐스탄)

저희를 서울교회 선교사로 파송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3개월 동안 서울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서울교회는 바른 신학에 기초하고 있는 바른 교회로, 교회가 해야 할 바를 옹골케 지향해 나가는 교회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교육과 선교와 구제의 세 기둥을 축으로 하여 거대한 비전을 품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서울교회의 모습은 앞으로 저희가 선교지에서 세워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위임목사님의 인격과 신앙은 저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까이에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저희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베풀어주신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동역은 앞으로 카자흐스탄의 무슬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슬림지역을 위한 동역은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돕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그 곳 선교지에서 복음의 큰 진보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희는 그 곳에서 카자흐스탄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그날을 기대하며 조국을 떠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가라시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강아금, 주한나선교사(동아시아)

서울교회와 함께 천국 복음이 시냇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쓰임을 받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하며 함께 동역할 우리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작별인사를 올립니다.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같고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이고 아론이고 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승리를 얻었고 기도를 쉬게 되면 실패하였습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영적전쟁에서 승패가 갈리는 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방이 아니라

후방입니다. 기도하는 손이 있으면 승리가 있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는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단마귀는 13억이나 되는 하나님의 잃은 백성을 찾아오는 일을 내버려둘 리 만무합니다. 지도자를 양육하는 일도, 제자를 양육하는 일도, 신앙서적을 번역하고, 통역하는 일은 모두 기도의 무릎이 간절히 요청되는 사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저희 가정만 보내지 마시고 저와 함께 동아시아로 가서 동역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의 신변을 위해 사진을 실지않는다:편집부



조범연 · 김희정 선교사(인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사명에 도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고 저를 파송해 주시는 서울교회와 이종윤 위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인도 선교를 공부하며, 인도의 영혼을 위해 술한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렸는데, 직접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니 감격스러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인도 12억의 대다수의 영혼은 우상숭배와 가난과 무지 속에서 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

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 애타는 마음을 갖고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던 중, 인도의 복음화는 인도인들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종윤 위임목사님의 추천을 받아 인도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교인 Union Biblical Seminary에서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길러내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 어두움의 지역, 인도에서 주의 종들을 양성하며, 교회개혁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숙선교사(아프리카)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님께 주님의 초월적인 은혜 아래에서 그동안도 가정과 사역이 평안 하셨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북부아프리카에 들어갑니다. 준비기간과 작업이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길었습니다. 이 기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의 소명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시고, 미래의 비전도 더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에도 가야 할 그 땅의 영적전쟁을 겪은것 같습니다. 도시에 들어갈 집도 준비되었고, 그 땅의 기도의 동역자들도 예비해놓으셨습니다.

동역자님들의 귀한 기도와 사랑으로 부족했던 정착금도 거의 채워졌고, 출발을 고대하며, 필요한 물품들과,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준비기간

동안 간간히 저를 찾아와 믿음을 약하게 했던 두려움도 주께서 없애 주셔서, 마치 제가 적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멋진 여행을 하는 것처럼 여겨져 신기할 정도입니다.

주님이 북부아프리카에 멋진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면, 항상 두려움 뒤에 형용할수 없는 기쁨과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아픔을 겪으며, 싸워 주신 동역자님께 감사를 드리며, 북아프리카 입국을 앞두고 갖는 소망과 기쁨이 동역자님의 가슴에도 물결치기를 기도합니다.

현당감사 연합찬양대 찬양 Festival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연이은 지붕들의 어깨 위로
 붉은 첨탑 위에 저 멀리 빛나는 십자가
 드넓은 공원의 숲을 트락으로 찬연히 솟은 예배당.
 여기가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전, 복음의 산실, 찬미의 전당이오이다.
 시린 새벽 맨바닥에 굳어진 무릎.
 은빛 찬양은 승전의 찬가 환희의 울림임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이 시대의 이 이적 앞에 더 이상 못 자국을 더듬지 않겠습니다.
 워낙 벅찬 비전이기에 기도하였고
 가진 것 없기에 기도하였습니다.
 옆 동네 살바람을 운유로 녹이시고 암반은 파석되어 바스퍼져 비껴나고
 국가경제 파산의 위기는 팔심으로 금력을 메꾸게 하였습니다.
 야경도 힘나고 쓰레기 먼지도 적은 눈에 향기로이.
 아픈의 금송아지 열신 못하고

군소리 큰소리 없이 기수를 따라 달리는
 어이 이런 복된 협력이 또 있을까?
 14년의 유랑과 고역과 정산의 연단으로
 이제 온전한 당신의 전으로 바칩니다.
 이 반석에서 생명이 발원 창일하여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된 천국시민 이루고
 약한 자 손잡아 일으키고
 한국교회에 튼실한 허리 되고
 생명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적이는
 세계 곳곳에 복음 들고
 독수리 훨훨 날게 하소서.
 이 감사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오직 주님께 돌립니다.

김형택 집사(12교구)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추수감사절, 교회설립기념일, 현당식, 선교사 파송식, 성경암송필사본 봉헌식, 장애인 전문대학 및 대안학교 창설 선포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계절이 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